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일상생활 조사연구 :

일상생활 만족/불만족 근거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 혜 경**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거주하는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경험하는지를 조사하며, 내용분석을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조기퇴직자 101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매우 만족, 만족/만족하는 편, 불만족/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 93명에 대한 개별적인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68로 낮은 편이었다.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의 근거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내적, 심리적 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주요 일과, 퇴직에 대한 태도라는 6개의 카테고리과 31개의 구체적인 만족 근거, 35개의 구체적인 불만족 근거를 도출하였다. 퇴직 후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의 근거에 대한 응답분포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의 가장 큰 근거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서 조기퇴직자들의 일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가정에서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부위/부료한 일상에서 오는 불만족도 매우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반면 일상생활 만족의 주요 근거로는 내적, 심리적 상태와 가족관계, 경제적 안정, 다양한 여가생활 등이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적, 미시적 차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1년도 선도연구자지원으로 연구되었음(2001-041- C00494).

**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어: 조기퇴직자, 일상생활 만족, 생활적응, 내용분석, 질적 연구, 지원체계

1. 서 론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50대 후반부터 60대 전반까지의 조기퇴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의 혼란기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들로서 한창 일할 수 있는 연령에 퇴직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개인적, 가족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들은 연령적으로 노년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서 퇴직 직후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느냐가 현재의 생활만족도 뿐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퇴직 이후의 생활적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퇴직준비와 적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각종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Glamsner, 1981).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하다. 즉 조기퇴직자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적으로 노년기와 다른 시기를 보내는 데서 오는 갈등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미흡하다. 이들은 노인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퇴직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조기퇴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조차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 퇴직자들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퇴직으로 인한 수입감소와 역할상실로 인한 자존감 저하, 가족관계 갈등이나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상의 부적응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의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서구 국가보다 높고, 퇴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최성재, 1989; 지연경·조병은, 1992), 조기퇴직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머무어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기퇴직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나 적응/부적응의 근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더욱이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이 주로 가정학적 접근(지연경·조병은, 1991)이나 심리학적 접근(윤진, 1995)이었고, 혹은 박충선의 연구(1995)처럼 가족생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차원, 특히 조기퇴직자의 적응, 재할, 사회화를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에 앞서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과 그 근거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인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

여 새로운 현상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현상이 갖고 있는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적합한 질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즉 양적 연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자세한 현상을 설명하며(Strauss, Corbin, 1990), 의미있는 경험의 세계, 즉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를 중시하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들의 일상생활 만족도와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포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통한 일반화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대한 면접조사 기록을 질적으로 분석한 후 그 속에 담겨있는 정보로 포괄적인 유형을 기술하고 탐색하는 귀납적 접근법을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거주하는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 면접조사를 행하며, 응답결과에 내용분석을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며, 만족하는 대상자와 불만족 대상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이는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조기퇴직자의 퇴직 후 일상생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2) 일상생활 만족 혹은 불만족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3) 만족하는 퇴직자와 불만족하는 퇴직자의 만족/불만족의 근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만족정도별, 혹은 불만족정도별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2. 선행연구

1) 이론적 배경

생활만족이란 생활 전반에 걸쳐 느끼는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서(Schalock, 1996)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는 한 개인의 복합적인 감정상태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퇴직과 생활만족에 관련된 초기이론으로는 기능주의와 상징적 상호작용의 입장에 근원을 두고 있는 분리이론, 활동이론, 역할이론 등이 있다. Cumming과 Henry에 의한 분리이론은 분리가 개인이나 사회 모두에게 기능적이고 유익하다고 보는데 비해 Havighurst와 동료들에 의해 주창된 활동이론, 그리고 역할이론은 인간은 연령을 초월하여 사회적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특히 활동이론은 노동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미국 사회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것으로 평가되는(구자순, 1992) 이론으로서 퇴직과 생활만족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데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현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의 지위가 낮아지며 역할이 상실된다고 주장한 현대화이론은 퇴직과 생활만족 간의 부정적 상관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한 바 있다. 그러나 Dowd(1975)는 인간은

사회의 물결에 따라 변화되는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이며, 인간의 사회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전적 소질, 사회화, 그리고 사회장면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과 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퇴직과 생활만족에 관한 그 동안의 선행연구들은 퇴직자들이 겪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퇴직자들의 생활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이론이나 현대화이론에 기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즉 퇴직 후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악화, 결혼생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아지고(George, Maddox, 1977), 극단적인 경우는 퇴직이 자살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Kirsling, 1986)들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자들은 역할상실과 경제적, 심리적 문제와 같은 개인적 수준의 문제, 부부갈등, 자녀와의 소원한 관계와 같은 가족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지적되었고(지연경·조병은, 1992; 조성남 외, 1998), 특히 우리 나라 남성들의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수준이 서구 국가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최성재, 1989) 성취지향적인 삶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퇴직 후의 적응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모든 퇴직자들이 퇴직 후의 생활에 불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Boss 등의 연구로서 퇴직 후에 부거운 책임과 역할에서 벗어나 홀가분하게 느끼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새로운 목표, 흥미, 활동을 추구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적응하는 경우를 보고하였다(Boss et als., 1990).

한편 Laslett(1989)은 직업생활에서의 은퇴와 함께 시작되며 가족부양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제3인생기를 개인적 성취의 시기로 구분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Young과 Schuller(1991)는 자기성취의 시기는 의무적인 것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의 시기라고 보고, Walker(1996)도 퇴직 이후의 시기를 생산적 노화의 시기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최근의 연구들은 퇴직과 생활만족도 간의 부정적 관계를 암시하는 활동이론, 현대화이론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관한 조사를 시도하고자 한다.

2) 퇴직자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초기에 연구된 퇴직 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개인의 연령, 건강수준이나 경제상태, 학력과 같은 개인적인 요인들이 많이 거론되었다. 예를 들면 연령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찍 퇴직한 사람일수록 상실감이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도감과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다거나(Freter, Kohli, Wolf, 1988). 학력에 대해 McPerson 등(1979)과 Skoglund(1980)는 교육수준이 높은 퇴직자일수록 퇴직준비에 대한 정보가 많고 활용하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퇴직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였다. 건강수준에 대해서는 건강과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퇴직 후의 성공적

적응과 만족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스트레스에 대한 행동연구가들은 개인의 상황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상황통제 가능성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한다(Lazarus, Delongis, 1983). 따라서 조기퇴직 후의 일상생활 만족도도 일상생활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가 하는 주관적인 평가과정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와 같은 개인적 요소 외에도 가족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가족적 차원의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만족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빈도,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와의 관련성이 지적된 바 있다. 퇴직과 결혼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는 양면적이다. 퇴직 후에 부부는 서로 중요한 정서적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며, 남편들이 가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결혼만족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결과(Atchley, 1992)가 있는가 하면, Bischof(1976)는 퇴직 후의 결혼생활을 일거리는 두 배로 늘어나고 수입은 반으로 감소하는 것(twice the husband and half the income)으로 묘사함으로써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였다.

퇴직 후 배우자와의 의사소통 빈도와 일상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의 정도가 결혼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며, 특히 노년기가 될수록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다(Anderson, McCulloch, 1993).

배우자와의 대화만족도 또한 부부가 서로 속마음을 털어 놓을수록, 상호 정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Lee, 1988; 신화용·조병은, 1999) 점에서 시사적이다.

한편, 퇴직 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 차원의 변수들로는 경제적 어려움의 여부, 사회적 지시의 정도, 퇴직준비 여부, 여가활동 참여여부 등이 거론되었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은 퇴직 후의 적응과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Howard et als., 1982). 경제적 대책이 없이 자녀양육의 책임과 가족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수록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점도 지적되었다(Freter, Kohli, Wolf, 1988).

한편 퇴직준비 여부와 퇴직 후 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수많은 연구에서 그 상관성이 입증된 바 있다. Glamser(1981: 245-250)는 퇴직 후 생활예견과 퇴직계획이 퇴직태도의 예측인자라고 설명하였고, Kasschau(1974)는 퇴직에 대한 계획이 퇴직에 대한 적응도를 높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최성재(1989)도 퇴직에 대한 태도와 계획 정도를 퇴직 후 생활예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인자로 설명하였다. 즉 퇴직 계획을 세울수록 퇴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퇴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또한 퇴직생활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수록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예견이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퇴직 후의 여가활동은 퇴직 후 생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온 여가활동이 더 큰 생활만족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ischof, 1976; Jacobson, 197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할 때, 결국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퇴직 후 생활만족도

는 높아진다. 즉 조성남 등의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퇴직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와 서비스는 성공적인 퇴직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것이다(1998).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조기퇴직자 중에서 55세 이상 64세까지의 퇴직자로 한정하였다. 조기퇴직이란 통상적으로 퇴직하기로 정해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사람을 지칭하지만, 정년의 시점 기준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다. 또한 본 연구의 원래 의도는 외환위기 직후에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의 혼란기에서 정년의 개념 자체가 무너지거나 경계가 불분명해졌고, 또한 자발적인 혹은 강제적인 퇴직의 경계선도 모호해진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조기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퇴직의 의미와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기퇴직의 상한 연령을 64세로 하고, 정년 이전에 퇴직한 모든 사람을 조기퇴직자로 정의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한다. 상한 연령을 64세로 정한 것은 65세 이상 퇴직자는 이미 법정 노인이므로 퇴직자로서보다는 노인으로서의 생활적응이 더 필요한 연령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본 조사의 성격상 연구자의 물음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고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조사대상 선정은 2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는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재취업훈련기관 등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계자의 소개를 받아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서울의 강북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재취업훈련기관, 강남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재취업훈련기관 각 1개 기관으로부터 모두 52명의 조기퇴직자를 소개받았다.

그러나 본 조사의 성격상 위의 기관들을 통해서만 대상자를 소개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조기퇴직 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적응과정을 보이는 퇴직자들은 접근하기도 쉽고 연구자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반면, 퇴직 후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자일수록 오랜 시간동안의 심층조사에 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의 특성이나 일상생활 만족도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것이 염려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5명의 주변 인물을 통한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여 49명의

1) 서구에서는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여 강제로 퇴직시키는 제도가 없고, 최근에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연장하거나 정년제 자체를 폐지하는 등 연령차별적인 퇴직제도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실정이므로 조기퇴직에 대한 개념정의와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개념정의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기퇴직자를 추가로 선정하였다.

조사된 101명 중에서 일상생활 만족도를 보통(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족하지도 않음)이라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응답의 전반적인 내용이 불충분하여 만족/불만족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던 8명은 최종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해 만족/불만족 근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조기퇴직자는 모두 93명이다.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81명으로서 87.1%나 되며, 여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이는 노동시장,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장년층노동인력의 성별 불균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5살부터 59살까지가 32명으로서 34.4%이며, 나머지 65.6%는 60살부터 64살의 연령이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50.5%이며, 고졸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는 36.6%로서 전체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34.4%가 연금을 받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연금수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자의 약 43%가 퇴직 전에 공무원이나 교직(초중고교), 군인 등의 직업을 가졌었기 때문이다. 퇴직전 직업으로서 회사원이나 은행원이 27명, 사업을 했던 경우도 7명, 생산직이나 단순노무직에 근무했던 경우는 19명이었다.

퇴직 후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15명(16.1%), 1년 이상 2년 미만 21명(22.6%), 2년 이상 3년 미만 25명(26.9%), 3년 이상 32명(34.4%)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쁜 편 혹은 나쁘다는 경우가 10명이고, 보통은 20명, 그 외 63명은 모두 건강이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응답하여 본 조사대상자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주요 조사방법은 질적 조사방법이다. 질적 조사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조기퇴직자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조기퇴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주관적 경험과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데에는 질적 접근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대상자를 1회에 1시간 이상 면접하였다. 대상자에 따라서는 2시간 이상의 인터뷰가 소요되기도 하였다. 조사는 본 연구자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3명의 대학원생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조사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기록되었다. 조사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졌다.

그러나 하나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며, 결과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해 연구주체와 대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Denzin, Lincoln, 1994)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를 재기 위한 양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만족, 불만족의 근거에 대해서도 양적인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함께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방법과 측정도구는 다음의 2가지로 나뉘어진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변 수 | 빈도수(n) | 백분율(%) |
|--------|-----------------|--------|--------|
| 성별 | 남 | 81 | 87.1 |
| | 여 | 12 | 12.9 |
| 연령 | 55-59세 | 32 | 34.4 |
| | 60-64세 | 61 | 65.6 |
| 교육수준 | 고졸 이하 | 34 | 36.6 |
| | 전문대졸 및 4년제 대학중퇴 | 12 | 12.9 |
| | 4년제 대학 졸업 | 36 | 38.7 |
| | 대학원 이상 | 11 | 11.8 |
| 연금수급자격 | 유 | 32 | 34.4 |
| | 무 | 61 | 65.6 |
| 퇴직전 직업 | 교직(초중고 교사, 교장) | 27 | 29.0 |
| | 공무원/군인 | 13 | 14.0 |
| | 회사원/은행원 | 27 | 29.0 |
| | 생산직/단순노무직 | 19 | 20.4 |
| | 자영업 | 7 | 7.5 |
| 퇴직후 기간 | 1년 미만 | 15 | 16.1 |
| | 1년 이상 2년 미만 | 21 | 22.6 |
| | 2년 이상 3년 미만 | 25 | 26.9 |
| | 3년 이상 | 32 | 34.4 |
| 건강수준 | 좋음/좋은 편 | 63 | 67.7 |
| | 보통 | 20 | 21.5 |
| | 나쁨/나쁜 편 | 10 | 10.8 |

(1) 일상생활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퇴직 후의 생활 전반에 걸친 모든 경험, 사고, 느낌, 감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현재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만족, 만족/만족하는 편, 보통(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족하지도 않음), 불만족/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의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2)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불만족에 대한 근거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하여 앞의 일상생활 만족도 질문에서 보통(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족하지도 않음)이라고 응답한 경우(8명)를 제외한 93명에 대해 각각 만족/불만족의 구체적인 근거를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질문하였다. 즉 조사는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은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 만족/불만족의 근거를 한두 가지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또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불만족의 근거가 되는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자들은 다양한 비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가족관계나 경제상태, 퇴직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응답을 유도하기도 했고, "하루를 어떻게 보

내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주요 일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3) 분석방법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불만족 정도와 그 근거를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목적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세 가지 연구문제에 대해 양적, 질적 분석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1) 일상생활 만족도에 관한 양적 분석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조기퇴직자의 퇴직 후 일상생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빈도, 백분율, 평균값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2) 만족/불만족의 근거에 대한 내용분석

두 번째의 연구문제인 일상생활 만족 혹은 불만족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으로 얻어진 질적 자료를 통해서 인터뷰의 초점이 되는 특정 주제에 관한 의미와 특징을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면접에서 표현된 모든 경험과 사고, 감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의 근거에 대한 포괄적인 기술(description)을 한 다음에, 비구조화된 응답내용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어떤 결론을 추론하는(Weber, 1990)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 내용분석법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다(Rubin & Babbie, 1997).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법 중에서도 조사대상자들의 진술내용에 전형적으로, 그리고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와 의미들을 부호화하고 이해 대해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

본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단계에서는 글로 옮겨진 면접 내용을 정밀 조사함으로써 조사대상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이 정밀조사를 통한 이해는 분석을 위한 배경지식으로 이용되었다. 둘째 단계에서는 면접의 내용을 각 조사자가 단어 중심으로 축어록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를 3명의 연구분석자가 어떤 개념적 틀이나 주제에 따라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만족/불만족의 근거를 크게 6개의 카테고리 분류하였고, 3차에 따르는 연구자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서 만족/불만족의 근거로서 상호배타적인 66개의 내용을 추출하였다.

셋째 단계에서는 카테고리 분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 혹은 불만족 여부가 분명하고 근거가 드러난 93명의 응답내용을 카테고리의 틀에 따라 확정된 49개 항목에 넣는 부호화(코딩) 작업을 하였다. 코딩과정에서는 내용분석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원생 두 명으로 하여금 코딩을 하게 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응답내용에서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거나 응답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전달의 내재된 내용(latent content)을 추론하여 부호화를 시도하였다.

2차에 걸친 부호화과정을 통해서 85 케이스에서 판단이 일치하여 일치도는 0.91 정도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응답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분석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문제인 만족하는 퇴직자와 불만족 퇴직자의 만족, 불만족의 근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만족정도별, 혹은 불만족정도별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답하기 위해 만족/불만족의 근거에 관한 응답분포를 파악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한 빈도수와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4.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본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68로 약간 낮은 편이었다. 즉 본 조사대상 조기퇴직자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혹은 불만족하는 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조기퇴직의 현상과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101명 중에서 20명(19.8%)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8.6%(n=39)는 불만족 혹은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58.4%가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퇴직자가 불만족하는 것은 아니라는 Boss 등(1991)의 지적과 조기퇴직이 양면적인 특징을 가져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실감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다는 Freter 등(1988)의 연구결과가 우리 나라의 조기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조사대상자의 12.9%(n=13)는 일상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0.8%(n=21)가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7.9%(n=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만족하지도 않고 불만족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만족이나 불만족의 근거를 조사하기 위한 심층면접의 과정에서도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가 될만한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일상생활 만족도에 관한 양적 분석에는 포함시켰으나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위의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 구 분 | 빈도수 | 백분율 |
|-------------|-----|------|
| 매우 만족 | 13 | 12.9 |
| 만족/만족하는 편 | 21 | 20.8 |
| 보통 | 8 | 7.9 |
| 불만족/불만족하는 편 | 39 | 38.6 |
| 매우 불만족 | 20 | 19.8 |
| 계 | 98 | 100 |

2) 일상생활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에 관한 내용분석

여기서는 앞에서 일상생활에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34명의 대상자와 일상생활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59명에 대해 각각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에 관해 기술하게 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만족, 불만족의 근거가 되는 상위 카테고리를 범주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분석 결과 만족과 불만족의 근거는 내적·심리적 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주요 일과, 퇴직에 대한 태도의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별로 구체적인 근거 내용을 분류한 결과, 만족의 경우 모두 합하여 31개, 불만족의 경우 35개의 구체적인 근거를 도출하였다(표 3 참조).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조사대상자의 만족 근거를 각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내적, 심리적 상태에서 만족하는 대상자는 “경쟁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는 것이 행복”, “자유로움”, “과거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할가분함”, “미래에 대한 꿈, 계획, 희망이 있다”, “일생 중 지늬이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 “퇴직 직후의 충격과 갈등상태에서 벗어나서 다행”, “과거의 직위, 권위의식, 체면 등을 모두 버리니 행복하다”는 등의 내용을 지적하였다.

반면 불만족하는 조사대상자는 “자신감 상실, 무력감”, “위축, 서글픔(이빨 빠진 호랑이)”, “일을 통해서만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음”, “과거(직업생활)에 대한 후회 혹은 집착”, “자주 우울해지고 짜증이 남(특히 아침에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이렇게 10년, 20년을 더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가족/가정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대상자는 “가족(특히 자녀)에 대해 책임을 다했으므로 할가분”, “가족(특히 아내) 덕분에 퇴직 직후의 좌절감에서 벗어나”, “배우자(아내)와 같이 취미, 여가활동하는 것이 즐거움”, “퇴직 직후에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했었으나 사이가 좋아짐” 등의 내용을 지적하였고, 일상생활에 불만족하는 대상자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흔들림(스스로 위축되어서 대화를 회피한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느낌이고 눈치가 보임”, “일할 동안 가족과 시간이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움”,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남”, “가족의 이해가 부족해서 외로움” 등을 불만족의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경제상태에 관한 만족의 근거로는 “연금도 받으니까 욕심만 안부리면 충분”, “밥먹는 정도니까 감

사하게 생각”, “나보다 못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등바등 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는 것들이 지적되었고, 불만족의 근거로는 “자녀교육비, 생활비가 부족”, “일해야 하는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 “용돈이 부족하고 여유가 없음”, “나 자신에게 투자(취업, 혹은 여가활동)할 돈이 없음” 등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관계에 관한 만족의 근거로는 “전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 “어려운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움”, “직업생활보다 자유로워서 즐거움” 등의 내용이 지적되었고, 불만족의 근거로는 “사회경제적 역할 상실로 피로움”, “일을 못할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생각, 그러나 일할 곳이 없음”, “일 중심적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놀라니 놀 수가 없음”, “사회적 박탈감(직장동료와도 연락이 단절된 상태이며,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등이 지적되었다.

주요 일과에 관한 만족의 근거로는 “다양한 여가, 취미활동, 운동 등으로 바쁨”, “봉사활동으로 1주일이 금방 감”, “공부(방송통신대 진학 등)와 학습에 전념”, “새로운 일을 추진하느라고 바쁨”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불만족의 근거로는 “하루 시간보내기가 두려움(특히 오후시간을 보내는 것이 고역이다)”, “아침부터 TV나 보면서 지냄”, “마땅히 갈 곳이 없음”, “너무 무료함” 등이 제시되었다.

퇴직에 대한 태도에서 만족의 근거로는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으므로 행복”, “퇴직 직후에는 반 아이들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있었고, 불만족의 근거로는 “퇴직 준비 부족에 대한 후회”, “너무 일찍 은퇴했다는 느낌”, “무지막지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감, 거부감(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정도로 분하다)” 등이 지적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의 근거는 상당히 다양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었던 변수들 중에서 퇴직시나 퇴직의 자발성 여부, 퇴직계획 여부 등도 거론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개인의 내적,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지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퇴직자 생활만족도 연구들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가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하루의 주요 일과가 일상생활 만족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3) 만족/불만족의 근거에 관한 응답분포

만족하는 퇴직자와 불만족 퇴직자의 만족/불만족의 구체적 근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또한 퇴직자의 만족정도별, 혹은 불만족정도별 만족/불만족의 근거에는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본 조사대상자 93명의 만족정도별, 그리고 불만족정도별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에 관한 응답분포를 분류하였다.

<표 3> 조기퇴직자의 만족/불만족의 구체적 이유

| 카테고리 | 만족의 구체적 근거 | 불만족의 구체적 근거 |
|-----------|--|---|
| 내적·심리적 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쟁에서 벗어나 조용히 지내는 것이 행복-자유로움 -과거에 최선을 다했으므로 홀가분 -미래에 대한 꿈, 계획, 희망 때문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서 좋음-욕심을 버리니 편안 -퇴직 직후의 충격과 갈등상태에서 벗어나서 다행 -과거의 직위, 권위의식, 체면 등을 모두 버리니 행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신감 상실, 무력감 -위축, 서글픔(이빨빠진 호랑이) -일을 통해서만 정체감을 확인할 수 있음 -생활패턴이 깨지는 것이 불안 -과거(직업생활)에 대한 후회/집착 -치주 우울(짜증)해짐(아침에 너무 우울, 죽고 싶다) -친구도 없고 환경변화에 적응 어려움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이렇게 더 살아서 무엇하나) |
| 가족/가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특히 자녀)에 대해 책임완수했으므로 홀가분하다 -가족(특히 아내) 덕분에 퇴직 후의 좌절감에서 벗어남 -배우자와 같이 취미/여가활동/운동하는 것이 즐겁다 -퇴직 직후에는 아내와의 관계가 서먹했으나 사이가 좋아짐. -자녀(손자녀)와 시간보내는 즐거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흔들림(스스로 위축, 대화회피) -아내와 아이들 눈치 보임(떴는지 못한 느낌) -무능해서 가족들에게 미안 -그동안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움 -가족(특히 아내)과의 관계가 소원 -아내와 할 말이 없음 -아내가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남 -가족의 이해가 부족해서 외로움 |
| 경제상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저축으로 충분 -자녀들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 -법먹는 정도니까 감사하게 생각 -욕심을 버리고 산다 -나보다 못한 사람 많다고 생각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고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부족 -자녀결혼비용 부족 -일해야 할 처지인데 마땅한 일자리가 없음 -용돈부족/여유부족 -자신에게 투자할 돈이 부족 -돈걱정은 없지만 삶의 의욕부족(돈생기는 것도 반갑지 않다) |
| 사회적 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없이 놀지 않는 것에 만족(부업) -전부터 하고 싶었던 활동해서 행복(하루가 짧다) -남이나 지역사회 위해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보람있다. -직업생활보다 자유로워서 즐겁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경제적 역할상실 -일을 못할 정도로 늙지 않았다고 생각.그러나 일할 곳이 없음. -일중심적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와서 놀라니 놀 수가 없음 -사회적 박탈감(직장동료와도 연락이 단절된 상태, 아무도 만나고 싶지않다) |
| 주요 일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여가/취미활동/운동으로 바쁨 -봉사활동으로 일주일이 금방 감 -공부(방송통신대 진학 등) 및 학습에 전념 -종교활동할 수 있어서 만족 -새로운 일 시작/추진으로 바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루 시간 보내기가 두렵다(특히 오후시간) -아침부터 TV나 보면서 지냄 -마땅히 갈 곳이 없음 -복지관프로그램이 여성위주라서 참여 안함 -너무 무료함 |
| 퇴직에 대한 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스로 퇴직을 선택했으므로 행복 -퇴직 직후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잘되었다고 생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준비 부족에 대한 후회 -너무 일찍 은퇴했다는 느낌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감, 거부감 |

(1) 만족정도별 만족의 근거에 관한 응답분포

<표 4>는 일상생활에 만족하는 조사대상자를 매우 만족하는 경우와 만족 혹은 만족하는 편으로 나는 후에 각각의 만족의 구체적 근거별 응답분포를 제시한 내용이다.

즉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의 수가 13명이었고 응답수는 전부 123개로서 1인당 평균 9.5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 21명에 응답수는 211개로서 1인당 평균 10개의 응답을 한 셈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수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서, 이것은 면접조사 과정에서 만족의 근거를 한 가지나 두 가지로 응답하게 하지 않고, 경제상태나 가족관계, 그리고 하루 일과에 관한 내용을 유도한 데에도 기인한다. 또한 한 카테고리 안에서도 2가지 이상의 응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면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응답했을 경우 분석에서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에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표시하였다.²⁾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의 응답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카테고리는 내적·심리적 상태이며, 특히 전부터 하고 싶었던 생활을 하므로 행복하고 즐겁다는 응답이 76.9%로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과거에 대해 만족(후회없음)한다는 응답비율과 미래에 대한 계획, 기대, 희망이 있다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퇴직을 선택하거나 퇴직 준비를 했다는 응답률 또한 76.9%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족/가정,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주요 일과와 같은 다른 카테고리에서는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이는 뚜렷한 만족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일상생활에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가 가장 빈번하게 응답한 카테고리는 가족/가정, 경제상태, 주요 일과에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족과의 대화/의사소통, 이해/신뢰를 지적인 비율이 각각 71.4%와 66.7%로 높았고, 욕심만 안부린다면 만족스러운 경제상태(71.4%)와 여가/취미활동/운동 등에 참여하는 것(71.4%) 등을 지적한 비율이 높았다. 이들의 내적, 심리적 상태는 “퇴직 직후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적응한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에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와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내적, 심리적 상태가 만족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러나 내적, 심리적 상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는 하고 싶었던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행복과 즐거움을 가장 많이 지적한 반면,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는 퇴직 후 재적응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2) 이 과정에서 만족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이들이 처한 상태를 보여주는 응답내용도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경제상태가 어렵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만족의 근거는 될 수 없었지만, 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자유롭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경우, 응답내용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경제상태의 “어려움”과 내적, 심리적 상태의 “자유로움”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 4> 일상생활 만족정도별 만족 근거에 대한 응답분포

| 카테고리 | 만족의 근거 | 매우 만족(n=13) | | 만족/만족하는 편(n=21) |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내적, 심리적 상태 | 하고 싶었던 생활하므로 행복/즐거움 | 10 | 76.9 | 3 | 14.3 |
| | 자유로움 | 7 | 53.8 | 10 | 47.6 |
| | 편안함(경쟁에서 벗어난 생활) | 2 | 15.4 | 11 | 52.4 |
| | 재적용에 대해 만족(퇴직직후의 감등에서 벗어남) | - | - | 14 | 66.7 |
| | 과거에 대해 만족(후회없음) | 9 | 69.2 | 10 | 47.6 |
| | 미래에 대한 계획, 기대, 희망 | 8 | 61.5 | 3 | 14.3 |
| 가족/가정 | 이해/신뢰 | 6 | 46.2 | 14 | 66.7 |
| | 대화/의사소통 | 3 | 23.1 | 15 | 71.4 |
| | 원만/화복 | 5 | 38.5 | 8 | 38.1 |
| | 의무로부터의 자유 | 2 | 15.4 | 7 | 33.3 |
| 경제상태 | 안정/여유(연금, 저축, 자녀지원) | 5 | 38.5 | 7 | 33.3 |
| | 욕심버리면 만족 | 3 | 23.1 | 15 | 71.4 |
| | 비교우위(남보다 낫다) | 2 | 15.4 | 3 | 14.3 |
| | 어려움(생활비, 자녀교육) | 3 | 23.1 | 10 | 47.6 |
| 사회적관계 | 활발/생산적 역할함 | 6 | 46.2 | 6 | 28.6 |
| |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생각 | 5 | 38.5 | 5 | 23.8 |
| |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서 만족 | 2 | 15.4 | 3 | 14.3 |
| | 사회와의 분리가 필요한 연령 | 1 | 7.7 | 8 | 38.1 |
| | 일하고 싶음(가끔/자주) | 1 | 7.7 | 8 | 38.1 |
| 주요 일과 | 여가/취미활동/운동 | 4 | 30.8 | 15 | 71.4 |
| | 봉사활동 | 5 | 38.5 | 7 | 33.3 |
| | 공부/학습 | 4 | 30.8 | 3 | 14.3 |
| | 종교활동 | 2 | 15.4 | 3 | 14.3 |
| | 새로운 일 시작/추진 | 5 | 38.5 | 3 | 14.3 |
| 퇴직에대한 태도 | 퇴직을 선택/퇴직준비 했음 | 10 | 76.9 | - | - |
| | 퇴직 직후의 충격에서 벗어남 | 2 | 15.4 | 13 | 61.9 |

반면 양 대상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의 가장 큰 만족의 근원은 퇴직을 선택하고 준비하여 하고 싶은 생활을 하는 행복과 즐거움에 집중되는 반면,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는 만족의 근거로서 가족과의 대화/의사소통, 이해/신뢰 등 가족/가정에 관한 것, 욕심만 안부린다면 만족스러운 경제상태, 여가/취미활동/운동 등에 참여하는 일과 등을 빈번하게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2) 불만족 정도별 불만족 근거에 관한 응답분포

<표 5>는 일상생활의 불만족 정도별 불만족 근거에 관한 응답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매우 불만족하

는 대상자의 수가 20명이었고, 응답수는 전부 244개로서 1인당 평균 12.2개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며,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 수는 39명이며 응답수는 448개로서 1인당 평균 11.5개의 많은 응답을 한 셈이다. 만족하는 대상자의 만족 근거보다 불만족 대상자의 불만족 근거가 더 많이 지적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표 5> 일상생활 불만족정도별 불만족 근거에 대한 응답분포

| 카테고리 | 불만족 근거 | 매우 불만족 (n=20) | | 불만족/불만족하 는 편(n=39) | |
|---------------|---|------------------|------|-----------------------|------|
| | | 응답수 | % | 응답수 | % |
| 내적·심리 적 상태 | 위축/불안 | 5 | 25.0 | 30 | 76.9 |
| | 무력감 | 7 | 35.0 | 15 | 38.5 |
| | 우울감 | 12 | 60.0 | 10 | 25.6 |
| | 분노 | 14 | 70.0 | 5 | 12.8 |
| | 과거(직업생활)에 대한 후회 혹은 짐작 미래에 대한 기대없음(절망감) | 13 | 65.0 | 29 | 74.4 |
| | | 16 | 80.0 | 25 | 64.1 |
| 가족/가정 | 이해부족/외로움 | 14 | 70.0 | 16 | 41.0 |
| | 스스로 위축, 대화회피 | 2 | 10.0 | 27 | 69.2 |
| | 후회감(과거에 잘하지 못한 것) | 5 | 25.0 | 10 | 25.6 |
| | 대화/의사소통 부족/결핍 | 9 | 45.0 | 34 | 87.2 |
| | 분노(무시한다는 느낌) | 16 | 80.0 | 12 | 30.8 |
| 경제상태 | 무능해서 가족들에게 미안 | 5 | 25.0 | 22 | 56.4 |
| | 어려움(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 14 | 70.0 | 24 | 61.5 |
| | 돈걱정은 없음 | 3 | 15.0 | 15 | 38.5 |
| 사회적관계 | 역할상실 | 5 | 25.0 | 19 | 48.7 |
| |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음 | 15 | 75.0 | 29 | 74.4 |
| | 사회적 박탈감 | 17 | 85.0 | 7 | 17.9 |
| 주요 일과 | 무위/무료 | 18 | 90.0 | 33 | 84.6 |
| | 마땅히 갈 곳이 없음 | 17 | 85.0 | 29 | 74.4 |
| | 복지관 등 노인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 3 | 15.0 | 5 | 12.8 |
| | 여가/취미생활/운동 함 | 2 | 10.0 | 7 | 17.9 |
| 퇴직에 대 한 태도 | 퇴직에 대한 예상/준비부족 | 17 | 85.0 | 32 | 82.1 |
| |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감/거부감 | 15 | 75.0 | 14 | 35.9 |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의 응답내용을 분석해 보면, 빈번하게 지적된 불만족의 근거가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구체적인 불만족 근거는 무위/무료한 일과로서 90%(n=18)가 이를 지적하였고,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지적도 85%나 되었다. 사회적 박탈감(85%),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는 것에 대한 불만(75%), 가족들이 무시하는 느낌에 대한 분노(80%), 가족의 이해부족/외로움(70%), 경제적 어려움(70%)이 지적되었다. 퇴직에 대한 예상과 준비부족을 지적한 대상자도 85%였고,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감이나 거부감을 지적한 경우도 75%나 되었다. 내적, 심리적 상태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가 각각 80%와 70%로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즉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는 퇴직에 대한 예상과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게 된 것에 대한 반발감, 사회적 박탈감이 심하며,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고, 무위/무료한 일상과 가족들의 태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절망하고 분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상생활에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가 가장 빈번하게 응답한 근거 역시 모든 카테고리에 걸쳐져 있다. 가장 빈번하게 지적된 구체적 근거는 가족과의 대화나 의사소통 부족 혹은 결핍으로서 87.2%(n=34)였고, 가족관계에서 스스로 위축되어 대화를 회피한다는 경우도 69.2%였다. 무위/무료한 일과(84.6%),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다(74.4%), 마땅히 갈 곳이 없다(74.4%)는 응답률도 높았고, 퇴직에 대한 예상/준비 부족(82.1%), 경제적 어려움(61.5%)을 지적한 비율도 높았다. 이들의 내적, 심리적 상태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위축/불안으로서 76.9%나 되었고, 과거에 대한 후회/집착을 지적한 비율도 74.3%나 되었다.

즉 본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적, 심리적으로 뿐 아니라 가족관계, 경제상태, 하루의 주요 일과 등 모든 면에서 위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가족/가정으로부터 오는 불만이 높으며, 경제적 어려움도 느끼는 상태에서 할 일과 갈 곳이 없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와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불만족의 구체적 근거가 모든 카테고리에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며, 퇴직에 대한 준비부족과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집착이 강하며,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다는 점과 무위/무료한 일과, 갈 데가 없다는 응답비율이 매우 높다는 공통점도 있다.

반면 이들의 차이점은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일수록 가족/가정과 관련된 불만을 가장 빈번하게 지적한 반면,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무위/무료, 사회적 박탈감,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감과 거부감 등 사회적 관계로 인한 불만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분석된 만족하는 대상자와 불만족하는 대상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는 경제상태에서 육십 버리면 만족하다는 비율이 높으며, 가족/가정에서 대화/의사소통의 수준과 가족간 이해가 높고, 주요 일과에서 여가/취미활동/운동 등에 참여하는 등 경제상태, 가족/가정, 주요 일과의 카테고리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매우 불만족한다는 대상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반드시 일해야 하는 처지이며, 가족들이 무시한다는 느낌 때문에 분노하고, 사회적 역할상실과 사회적 박탈감으로 힘들어하며,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는 무위/무료한 일과를 불만족의 구체적인 근거로 지적하였다. 또한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는 가족과의 대화/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스스로 위축되어 대화를 회피하며,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경제상태, 가족/가정, 주요 일과 카테고리에서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매우 만족하는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이 주로 내적, 심리적 특성과 퇴직 선택과 준비 여부에 기인한다면, 만족/만족하는 편, 불만족/불만족하는 편,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5. 논의 : 요약 및 함의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에 거주하는 조기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를 조사하고,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경험하는지를 조사하며, 내용분석을 통해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의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68로 약간 낮은 편이었다. 즉 본 조사대상 조기퇴직자들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불만족, 혹은 불만족하는 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상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중 58.4%가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12.9%는 일상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20.8%가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조기퇴직이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Freter 등(1988)의 연구결과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상생활에 매우 만족, 혹은 만족하거나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34명의 대상자와 일상생활에 매우 불만족, 혹은 불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59명에 대해 각각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에 관해 기술하게 하고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만족과 불만족의 근거는 내적·심리적 상태, 가족관계,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주요 일과, 퇴직에 대한 태도라는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었고, 각 카테고리별로 만족의 경우 31개, 불만족의 경우 35개의 구체적인 근거를 도출하였다.

만족, 불만족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의 근거는 상당히 다양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었던 변수들 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특히 개인의 내적, 심리적 상태가 상당히 다양하게 지적되었고, 선행연구들에서 자주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가정에 관한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하루의 주요 일과가 일상생활 만족도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만족하는 대상자와 불만족하는 퇴직자의 만족, 불만족의 근거의 유사점과 차이점, 그리고 만족/불만족의 정도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조사대상 조기퇴직자들은 만족, 혹은 불만족의 근거로서 내적, 심리적 특성을 빈번하게 지적하였다. 특히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일수록 하고 싶었던 생활을 하는 데서 오는 행복과 즐거움을 일상생활 만족의 가장 큰 근거로 지적하였다.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도 퇴직 직후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만족의 근거로 지적하였고, 매우 불만족하는 대상자는 절망감과 분노감,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는 위축/불안을 불만족의 근거로 지적하였다.

이처럼 내적, 심리적 특성이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 불만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는 퇴직 후의 적응과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Lazarus 등(1983)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며, 개인의 성격특성과 퇴직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지적한 Howard 등(1982)의 분석결과가 우리 나라 조기퇴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준다.

또한 퇴직시거나 퇴직에 대한 태도나 준비, 계획 등이 일상생활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Kasschau(1974), Glamsner(1981), Freter 등(1988), Swan 등(1991)의 지적이 우리나라 조기퇴직자에게도 적용되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매우 불만족한다는 대상자는 할 일이 없고 갈 곳이 없고, 생활비 부족으로 반드시 일해야 하는 처지이며, 가족들이 무시한다는 느낌 때문에 분노하고, 사회적 역할상실과 사회적 박탈감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불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는 가족과의 대화/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스스로 위축, 대화를 회피하며,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며,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등 경제상태, 가족/가정, 주요 일과 카테고리에서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는 경제상태에서 욕심버리면 만족하다는 비율이 높으며, 가족/가정에서 대화/의사소통, 가족간 이해가 높고, 주요 일과에서 여가/취미활동/운동 등에 참여하는 등 경제상태, 가족/가정, 주요 일과의 카테고리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매우 만족하는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이 주로 내적,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면, 나머지 대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크게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일반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비해, 본 조사대상자들은 주로 외환위기 후의 조기퇴직자들로서 퇴직 준비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퇴직을 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는 일이다. 특히 연금도 없고 퇴직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부족한 퇴직자의 어려움이 더욱 크며, 또한 일에 대한 집착이 클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없는 현실이 조기퇴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책적, 실무적 대책이 요구된다.

2)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함의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55-64세인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갑자기 밀어닥친 구조조정과 조기퇴직 현상, 퇴직에 대한 준비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일상생활에 불만족하는 조기퇴직자가 많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실제로 본 조사결과 대부분의 조기퇴직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본 조사결과가 조기퇴직자의 생활적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함의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결과 조기퇴직자의 가장 큰 불만족의 근거는 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일은, 그것이 경제적 이유이든 혹은 정체성 확인의 수단이든 간에 일상생활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평생 일만 해왔는데, 이제 와서 놀라니 놀 수가 없다”는 표현은 조기퇴직자의

상황을 가장 집약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다. 특히 만족/만족하는 편인 대상자 중에도 약 38%가 일하고 싶다는 의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일에 대한 집착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위의 연구결과는 거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즉 최근에 OECD 고령화 프로젝트팀에서도 건의한 바 있는 것처럼 퇴직연령 상향조정, 연공서열임금제의 개혁, 임금피크제의 도입 등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와 실행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특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거나 기업체 채용시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령차별 금지법의 제정 가능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퇴직하였으나 일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최근에 개별 기업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 퇴직자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조사결과 퇴직시기나 퇴직에 대한 태도, 준비, 계획 등이 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빈번히 지적된 바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일부 기업체와 대학의 사회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이 소수 있을 뿐이고, 그것마저 형식적인 교육에 그쳐서 실제로 퇴직 이후의 생활적응을 돕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형편이다. 앞으로는 개별 기업체 차원에서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수준의 준비 및 적응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퇴직 후 결혼만족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Atchley(1992)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의 조기 퇴직자들은 가족/가정에서의 어려움,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가 일상생활 불만족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하는 대상자 중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퇴직 직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불만족 대상자들은 가족관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위축감과 분노감이 더욱 높아졌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는 가족관계가 퇴직 후의 생활만족도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퇴직준비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퇴직 후 결혼만족도가 가사참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음식만들기 등 가사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조사결과 우리 나라의 조기퇴직자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성취지향적이고 일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 나라 남성(본 연구대상자의 87%가 남성이었음)들의 생활양태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가는 일이다. 따라서 퇴직준비와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일 뿐 아니라 “놀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연령적으로나 사회심리적으로 “노인”이 될 수 없는 이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놀이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다섯째, 본 조사결과 약 37%의 퇴직자는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약 10%는 하고 싶었던 생활을 하므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Laslett 등(1989)이 지적한 바 있는 개인적 성취의 시기로서의 제3인생기, 그리고 자유롭고 생산적인 노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조기퇴직자의 일상생활 만족도가 내적, 심리적 상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본 연구결과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The

Second World Assembly on Aging)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퇴직자에 대한 지지적 환경과 함께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보편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구자순. 1992. 한국 사회노년학 연구와 이론적 발전, 『한국노년학』, v.12(1).
- 박충선. 1995. 조기퇴직자의 가족적 지원과 대책방안, 『한국노년학』, v.13(2).
- 신화용, 조병은. 1999. 남편이 퇴직한 부부의 상호작용 특성과 결혼만족도, 『한국노년학』, v.19(1).
- 윤진. 1995. 퇴직 후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현상과 대책, 『사회복지』.
- _____. 1995. 은퇴 이후의 사회·심리적 영향, 『한국노년학』, v.13(2).
- 정규서. 1995. 조기퇴직자의 재취업과 소득보장문제, 『한국노년학』, v.13(2).
- 조성남, 이동원, 원영희. 1998. 『고령화사회와 중상층노인의 사회활동』,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51집.
- 지연경, 조병은. 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 최성재. 1989. “퇴직 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창간호.
- Alteggott, K. 1988. Daily life in later life: Concepts and methods for inquiry, Alteggott, K. (ed.). *Daily life in later life: Comparative perspectives*. Newbury Park, CA: SAGE.
- Anderson, T., McCulloch, B. 1993. Conjugal support: Factor structure for older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Gerontology*. 48(3). 133-142.
- Atchley, R. 1992. Retire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in Szinovacz, M. et als.(eds.). *Families and Retirement*. CA: Sage.
- Bischof, C.J. 1976. *Adult Psychology*, The Murray Printing Co.
- Carlsson-Agren, M., Berg, S., Wenestam, C. 1992. Daily Life of the Oldest Old,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Vol.XIX, No.2, pp.109-124.
- Denzin, N., Lincoln, Y.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owd, J.J. 1975. Aging as exchange: A preface to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30. pp.580-588.
- Freter, H.J., Kohli, M., Wolf, J. 1988. Early Retirement and Work after Retirement: Implications for the Structure of the Work Society. *Comprehensive Gerontology*. section B. 2. pp.44-52.
- George, L., Maddox, G. 1977. Subjective Adaptation to Loss of Work Rol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33. pp.269-278.
- Glanser, D.F. 1981. The Impact of Preretirement Programs on the Retirement Experiences. *Journal of Gerontology*. v.36(2). pp.244-250.
- Howard, J.H., Marshall, J., Rechnitzer, P.A. Cunningham, D.A. Donner, A. 1982. Adapting to Retirement.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30. pp.488-500.
- Jacobson, D. 1974. Planning for reirement and anticipatory attitude toward withdrawal from work. *British Journal of Guidance Counseling*. 2. 72.
- Kasschau, R.I. 1974. Reevaluating the need for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Industrial Gerontology*. 1. pp.42-59.
- Kirsling, R.A. 1986. Review of Suicide among Elderly Persons. *Psychological Reports*. 59. pp.359-366.
- Laslett, P.A. 1989. *Fresh Map of Life*.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Lazarus, R.S., Delongis, A. 1983. Psychological Stress and Coping in Aging. *American Psychologist*, 38, pp.245-354.
- Lee, G.R. 1988. Marital intimacy among older persons: The spouse as confidant, *Journal of Family Issues*, 9, 273-284.
- Maddox, G.L. 1987. Aging differently, *The Gerontologist*, 27, pp.557-564.
- Markson, E.W. 1973. Readjustment to time in old age, *Psychiatry*, 36, pp. 37-47.
- Marton, F. 1981. Phenomenography—describing conceptions of the world around us, *Instructional Science*, 10, pp. 177-200.
- McPerson. B. & Guppy, N. 1979. Preretirement life-style and the degree of planning for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34(2), pp.254-263.
- Skoglund, J. 1980. Attitudes toward work and retirement in Sweden: A multigroup, multivariat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1(2), pp.147-162.
- Rubin, A., Babbie, E. 1997. *Research Method for Social Work*.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chalock, R. 1996. *Quality of life*, NY: American Association on Mental Retardation.
- Strauss, A.,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 Walker, J.(ed.). 1996. *Changing Concepts of Retirement*. Brookfield, Vermont: Ashgate Publishing Co.
- Weber, R.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 Young, M., Schuller, T. 1991. *Life after Work: The Arrival of the Ageless Society*. London: HarperCollins Publishers.

An Analysis of Daily Life of the Early Retirees : Content Analysis of Sources of Lif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Han, Hye-Kyung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o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early retirees spent their days and how daily life was experienced. In order to cover as many aspects as possible of the subject, this study examined sources of lif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Data were drawn from in-depth interviews in which 101 early retirees residing in Seoul.

The Majority of early retirees in this study were at least somewhat dissatisfied with their daily life. Content analysis of reasons for life satisfaction/dissatisfaction revealed that the sources were categorized into 6 categories and 66 specific sources. Analysis of sources of life satisfaction revealed that early retirees mentioned most frequently as their sources of life satisfaction in this order: subjective emotions, family relations, stability of economy, positive attitude on retirement. Analysis of sources of life dissatisfaction revealed that life dissatisfaction was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 loss of work role, family, unstability of economy, and ill preparation for retirement. Implications for macro and micro alternatives to support early retirees were provided.

[접수일 2002.9.5 게재확정일 2002.11.1]